

##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원자재가격, 상하방요인 혼재로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 -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 원자재가격, 상하방요인 혼재로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7월 에너지 및 농산물 부문 하락, 비철금속 강보합(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2.3% 하락.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2.8%, 농산물 -3.7%, 산업금속 +0.4%, 귀금속 -1.4%, 축산물 +2.9%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0.3% 강보합
  - 美 천연가스(+51.7%), 납(+6.7%), 아연(+4.8%), 니켈(+4.1%) 등 상승. 옥수수(-17.1%), 두바이(-8.0%), 소맥(-7.0%), 원당(-6.9%), WTI(-6.8%), 주석(-5.3%), 美 휘발유(-4.4%) 등 대부분 하락

### ■ [전망] 공급 불확실성과 경기부진 등 상하방요인 혼재로 원자재가격 진폭 확대 예상

- 유가 :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으나 경기 및 수요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강화 및 약세압력 누증에 유의. 다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로 대형 공급불안 재점화 시 유가 변동성 확대 예상
- 곡물價 : 8월 기상예보를 감안하면 가을 수확 전까지 Weather Market이 강화되며 곡물 가격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 가을 수확 전까지 농업기상여건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주요 관전포인트
- 비철금속價 : 전반적인 공급부족 여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 유럽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발 비용상승 및 수요둔화, 기업실적 감소 등이 약세요인으로 작용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7.29일 기준)

	7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WTI	99.38	97 (-7)	92 (-1)	92 (-4)	87 (-4)
옥수수(\$/부셸)	6.632	7.45 (-0.55)	7.90 (+0.20)	7.75 (+0.30)	7.55 (+0.40)
소맥(\$/부셸)	8.067	10.70 (-1.30)	12.00 (+0.86)	11.50 (+1.70)	11.75 (+2.55)
구리(\$/톤)	7,556.5	8,000 (-1,967)	8,300 (-1,517)	8,400 (-1,142)	8,375 (-1,042)
알루미늄(\$/톤)	2,414.4	2,500 (-800)	2,600 (-600)	2,600 (-550)	2,650 (-434)

주: 1) 7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sup>1)</sup>

		'21년 평균	'22년 평균	6/30	7/29	전월말 대비(%)	전년말 대비(%)	연중최고 <sup>2)</sup>	연중최저 <sup>2)</sup>
Index	CRB	209.22	288.47	291.15	292.06	+0.3	+25.7	329.59(6/9)	232.37(1/3)
	S&P GSCI	517.32	708.40	709.23	692.64	-2.3	+23.4	853.27(3/8)	558.47(1/3)
	에너지	229.53	350.35	369.63	359.10	-2.8	+42.3	434.77(6/8)	250.00(1/3)
	농산물	414.77	517.34	474.53	456.95	-3.7	+2.6	607.01(5/17)	423.99(7/22)
	산업금속	456.60	517.84	437.91	439.85	+0.4	-11.9	757.84(3/8)	387.87(7/15)
Oil & Gas	WTI(\$/배럴)	68.08	101.43	105.76	98.62	-6.8	+31.1	130.5(3/7)	74.27(1/3)
	두바이(\$/배럴)	69.01	103.57	114.99	105.80	-8.0	+38.3	132.47(3/9)	75.62(1/3)
	브렌트(\$/배럴)	70.95	104.97	114.81	110.01	-4.2	+41.4	139.13(3/7)	77.04(1/3)
	휘발유(\$/배럴)	89.13	137.09	153.29	146.50	-4.4	+56.5	181.692(6/6)	92.84(1/3)
	천연가스(\$/mBtu)	3.723	6.203	5.424	8.229	+51.7	+120.6	9.752(7/26)	3.638(1/3)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9.672	8.688	8.078	-7.0	+4.8	13.40(3/4)	7.355(1/7)
	옥수수(\$/부셸)	5.819	7.168	7.438	6.163	-17.1	+3.9	8.27(4/29)	5.615(7/22)
	대두(\$/부셸)	13.747	16.124	16.750	16.370	-2.3	+23.2	17.84(6/9)	13.32(1/3)
	쌀(\$/cwt)	13.34	15.99	16.43	16.89	+2.8	+15.4	18.155(5/16)	14.35(1/18)
	원당(¢/파운드)	17.88	18.85	18.83	17.54	-6.9	-7.1	20.51(4/14)	17.32(7/27)
Metals	금(\$/온스)	1,799.0	1,856.6	1,807.3	1,765.9	-2.3	-3.5	2,070.44(3/8)	1,680.99(7/21)
	구리(\$/톤)	9,293.5	9,428.7	8,258	7,917.5	-4.1	-18.5	10,845(3/7)	6,955(7/15)
	알루미늄(\$/톤)	2,485.9	2,982.8	2,445.5	2,488.5	+1.8	-11.4	4,073.5(3/7)	2,310(7/15)
	니켈(\$/톤)	18,466.9	26,626.9	22,698	23,619	+4.1	+13.8	55,000(3/7)	18,230(7/15)
	아연(\$/톤)	3,007.3	3,680.8	3,157	3,308.5	+4.8	-6.4	4,896(3/8)	2,824.5(7/15)
	납(\$/톤)	2,189.4	2,219.2	1,907.5	2,034.5	+6.7	-11.7	2,700(3/8)	1,784.5(7/14)
	주석(\$/톤)	31,172.4	37,607.6	26,451	25,047	-5.3	-35.5	51,000(3/8)	22,980(6/24)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2.99	35.13	38.32	+9.1	+31.4	33.2(3/2)	29.16(1/3)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3,281.6	70,460	50,460	-28.4	-28.4	78,000(3/7)	50,460(7/18)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6	2.16	-	+1.1	2.22(2/7)	2.137(1/3)
CO <sup>2</sup>	탄소배출권(€/톤)	53.63	82.92	89.88	78.27	-12.9	-2.4	97.88(2/8)	55.47(3/2)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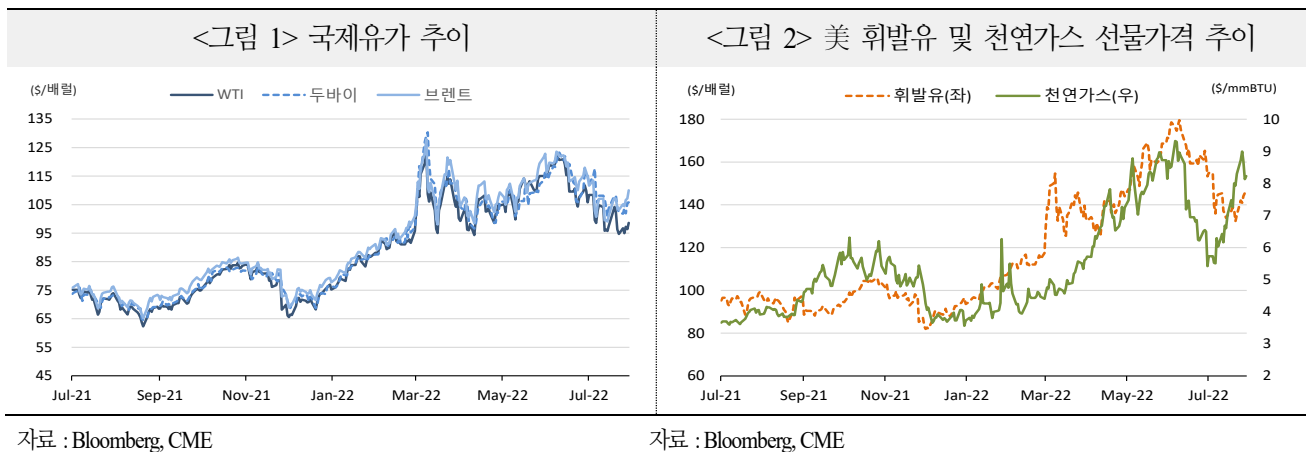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2년 1월 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I. 원유

### □ [동향] 7월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WTI 선물가격, 7.29일 \$98.62로 전월말 대비 -6.8%
  -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선진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6월 중순 이후 한 때 급락했으나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타이트한 수급을 반영해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이 다시 증가하며 7월 들어 하락폭 축소
  - 美 휘발유도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둔화로 하락(\$146.50, -4.4%). 美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공급 축소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폭등(+51.7%)



### □ [주요 변수] 유럽 가스대란 우려, 세계 성장률, 산유국 증산 여부, 정정불안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유럽 천연가스 공급불안 러-우 전쟁	성장 및 수요 둔화 통화긴축, 산유국 증산

- 러시아의 NordStream1 가동 재개 등에도 불구하고 공급차질 우려 여전
  -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은 터빈의 유지보수를 위해 정상 공급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추후 더욱 축소될 가능성 제기
    - 美·유럽 폭염에 따른 에어컨 수요 증가와 NordStream1 이슈로 천연가스 가격 강세 지속
- 세계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 상존
  -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 4월 전망치(3.6%)보다 0.4%p 하향조정. △인플레이션 △중국경제 둔화 △러-우 전쟁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
-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확대

- 중국의 6월 러시아산 원유수입은 일일 177만배럴(+10%, yoy)로 사우디산 수입규모를 능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수입도 일일 95만배럴(전월비 +15.5%)로 사상 최대치
    - 제재 비동참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으로 G7의 가격상한제는 유명무실화 가능성
  - 베네수엘라, 2년 만에 원유수출 재개
    - 이탈리아 Eni社は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6월 중 65만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
  - 차기 OPEC+ 회의(8.3일, 9월)에서 추가 증산 결정 여부에 주목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증산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현재의 유가 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산 논의 지속 예상
  - 미국 원유수출 사상최대치, 재고 증가,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
    - 7.22일 기준 원유수출 급증(일일 455배럴, 전월동기대비 +34.6%)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증가. 정제가동률 하락(92.2%, 전월비 -2.8%p) 등으로 원유재고(4.22억배럴, 전월비 +1.6%) 증가
      - 원유생산은 금년 4월부터 완만히 증가해 7.22일 일일 1,210만배럴(20년 4월말 이후 최고치. 역대 최고치는 1,310만배럴) 기록. 고유가로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증가할 가능성
  - 리비아, 친정부 vs. 반정부 세력 간 정정불안 지속
    - 불가항력이 해제된 후 국영석유사(NOC)는 원유생산량을 현재 일일 80만배럴에서 120만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잦은 무장 충돌로 증산에 차질
-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으나 경기 및 수요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약세압력 누증에 유의. 천연가스 공급불안 이슈도 중요한 변수**
- 상하방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되고 고유가에 따른 부담도 예상되어 하방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
    - 계절적 요인(성수기)이 종료되는 8월 중순 이후 소비둔화 속도에 주목할 필요
  - 다만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로 대형 공급불안 재점화 시 유가 변동성 확대 예상
    - 최근 금융자금 유출이 축소되고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분위기. ICE 브렌트유 선물옵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최근 2주 만에 1.40억배럴에서 1.66억배럴로 회복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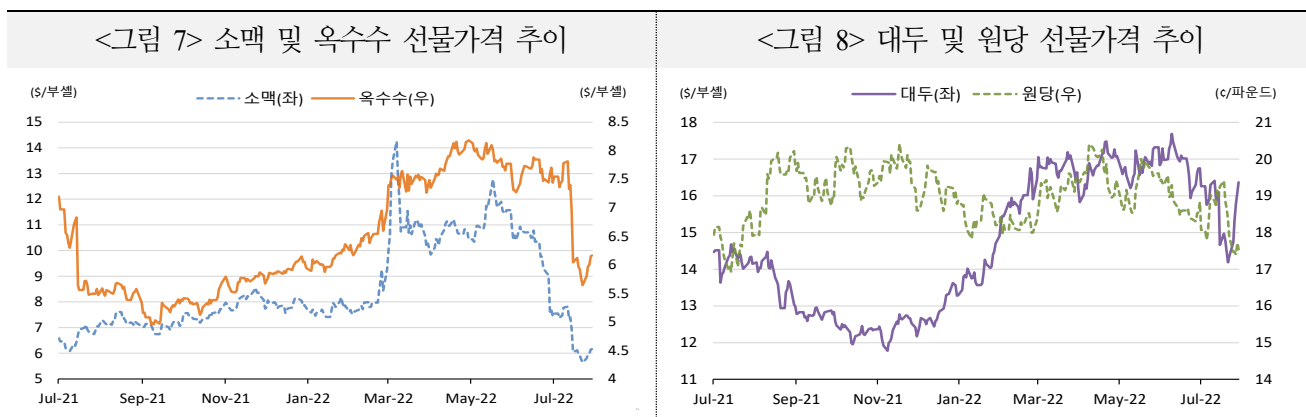
	7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WTI	99.38	97 (-7)	92 (-1)	92 (-4)	87 (-4)
브렌트	105.12	100 (-7)	95 (-1)	95 (-3)	90 (-4)

주: 1) 7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 곡물

### □ [동향] 7월 주요 곡물가격은 옥수수가 급락하는 약세 지속

- 7.29일 CBOT 옥수수 선물가격은 \$6.1625(전월말 대비 -17.1%)로 3개월 연속 하락
  - 美 작황호조, 러-우크라이나 수출협상 타결 등으로 월 후반 한 때 연초 수준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美 중서부 농업기상여건 악화로 낙폭 다소 만회
  - 소맥도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기대감 등으로 -7.0%를 기록하며 러-우크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 대두는 中 수요 위축 우려 등으로 -2.3%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 [주요 변수] 주요국 기상여건, 곡물 생육 상태,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투기동향 등

- 美 중서부 고온건조 기후 및 유럽 폭염(heatwave)은 곡물 작황에 부정적 요인
  - 옥수수 및 대두의 최대 주산지인 美 중서부에서 전월말부터 시작된 고온건조한 날씨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특히 본격적인 생장 과정에 진입한 대두의 작황이 악화될 가능성
    - 중서부 지역 가뭄 비율, 6월초 9% → 7.26일 42%(US Drought Monitor)
  - 유럽에서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곡물의 작황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역내 최대 소맥 생산국)의 금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2백만톤 이상 감소해 '00년 이후 7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Agritel)
- 미국 옥수수 및 대두의 생육 상태 최근 예상 하회. 겨울밀 수확은 순조롭게 진행
  - 7.24일 기준 옥수수 생육 상태의 Good/Excellent(G/E) 비율은 61%로 전주보다 3%p 하락. 대두의 G/E 비율도 59%로 전주 대비 2%p 하락

- 美 중서부의 고온건조한 기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G/E 비율 하락 불가피
- 한편 겨울밀 수확(7~8월)은 7.24일 기준 77%로 예년 평균인 80%를 소폭 하회
-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불확실성은 잔존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UN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전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 우크라이나에는 2천만톤 이상의 곡물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출이 재개되면 글로벌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 우크라이나는 매월 5백만톤 수출을 목표로 설정
  - 하지만 협상 타결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급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출 재개 과정에서 돌발변수 발생 시 언제든지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
- 투기성 자금 유출세 지속. 다만 농업기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전될 소지
  - CBOT의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7.26일 15.0만계약으로 한 달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2년래 최저치 기록. 대두의 순매수포지션도 8.0만계약으로 연중 최저치로 감소했으며, 소맥의 순포지션은 (-)로 전환
  - 가격부담 등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전세계 폭염으로 수율(yield)이 하락하고 생산전망이 하향조정 될 경우 유입세로 돌아설 가능성
- [전망] 8월 기상예보를 감안하면 가을 수확 전까지 Weather Market이 강화되며 곡물 가격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
  - 소맥, 옥수수, 대두 가격은 양호한 작황과 긍정적 생산 전망 등에 힘입어 5~6월 큰 폭 하락했으나 최근 농업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
    - 美 농무부는 7월 전망에서 '22/'23년 세계 곡물생산 전망을 하향조정(6월에는 상향)
  - 가을철 수확 전까지 농업기상여건이 곡물가격 움직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주요 관전포인트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셸)

	7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옥수수	6.632	7.45 (-0.55)	7.90 (+0.20)	7.75 (+0.30)	7.55 (+0.40)
소맥	8.067	10.70 (-1.30)	12.00 (+0.86)	11.50 (+1.70)	11.75 (+2.55)
대두	15.504	15.95 (-0.05)	16.50 (+1.00)	15.90 (+0.30)	15.88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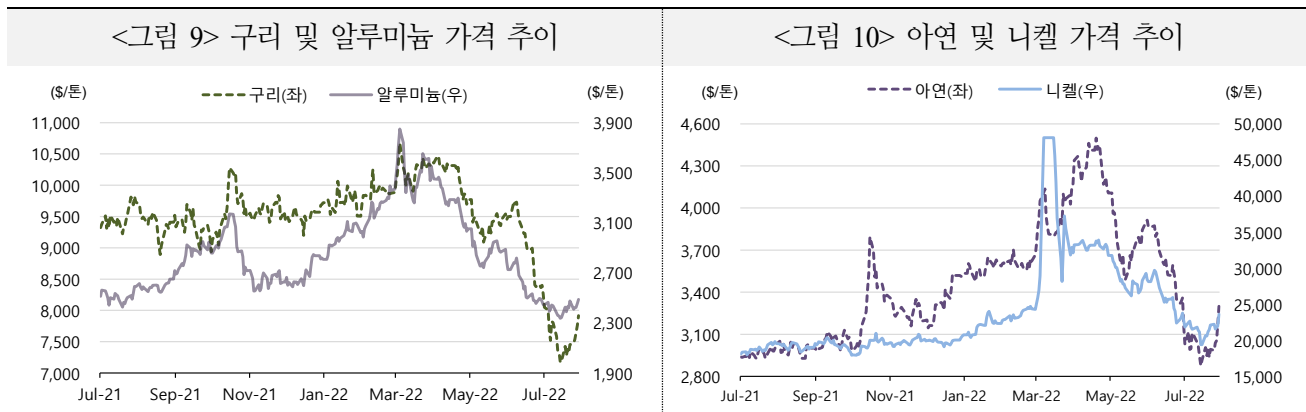
주: 1) 7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I. 금속

#### □ [동향] 7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세 시현

- LME 구리 선물가격, 7.29일 톤당 \$7,917.5로 전월말 대비 -4.1%
  - 중국의 코로나 봉쇄, 미국 2분기 연속 역성장, 제조업 활동 부진,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하락했으나 월 중반 이후 반등하며 낙폭 축소. 니켈은 거래소 재고 감소세, 메이저 Vale社의 생산 감소,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4.1% 반등
  - 알루미늄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프라투자 발표 등으로 반등(+1.8%). 아연은 유럽 생산업체들의 감산 추진, 주요 거래소의 재고 감소세 등으로 4.8% 상승
- 금 가격은 통화긴축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하락(\$1,765.9, 전월말 대비 -2.3%)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 [주요 변수] 주요국 통화긴축 행보, 중국 성장률, 유로존 에너지 위기 등

- 주요 선진국 금리인상 가속화. 중국 2Q 성장 둔화. 유럽 경제활동 둔화
  - 미 연준은 6월(+75bp)에 이어 7월에도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며 통화긴축 기조 지속. ECB도 7월 11년만에 처음으로 50bp 인상해 국가 부채비율이 높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
  - 중국 2분기 성장률은 0.4%로 코로나 확산기인 '20년 1분기(-6.9%) 이후 최저치. 현재 41개 도시가 부분 폐쇄 및 구역 기반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中 GDP의 22.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Nomura)
  - 유로존 7월 제조업 PMI는 전력난에 따른 수요둔화 영향으로 25개월래 최저치인 49.6 기록(6월 52.1). 서비스업 PMI도 50.6으로 15개월내 최저치로 하락(6월 53.0)
    - 유럽은 전력난으로 상반기 아연 및 알루미늄 정·제련소의 생산능력이 50% 급감.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를 앞두고 비용 상승으로 추후 감산이 심화될 소지(Eurometaux)



- 구리 : 가뭄으로 칠레 생산 감소 우려.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 칠레의 Antofagasta社는 Los Pelambres 광산의 지하 파이프라인 누수 및 물 부족으로 연간 생산 목표치를 66~69만톤에서 64~66만톤으로 하향조정
  - 최근 중국에서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모기지론 상환 보이콧이 확산. 규제당국이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연장 등으로 대응하여 부실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관련 리스크는 구리가격에 약세요인
  - LME 구리 재고는 7.25일 13.4만톤으로 러-우 전쟁 발발 당시인 3월초 대비 92% 반등했으며, 최근 한달 동안에만 19% 증가하며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조짐
- 니켈 : 재고 감소세 지속. Vale社의 생산량 감소
  - LME 니켈 재고는 7.25일 6.0만톤으로 최근 8주 연속 감소세. 러-우 전쟁 발발 당시인 2월말 대비 -24.1%, 한 달 전 대비 -9.7%(21년 4월 26만톤 대비 -76.8%)
  - Vale社의 2분기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1% 감소해 8분기 연속 전년수준을 하회
- 알루미늄 : 글로벌 및 중국 생산 전년대비 증가
  - 6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565만톤을 기록(IAI). 이 중에서 중국의 생산량은 제련소들의 가동률이 회복된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333만톤 기록

□ [전망] 비철금속 시장은 전반적인 공급부족 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불거져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

- 주요 기관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반영해 비철금속 가격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분위기. Goldman Sachs는 부정적인 경기 전망으로 3개월 후 구리가격 전망을 \$6,700으로 하향
  - 세계 경기둔화 우려로 구리는 3월 고점대비 25%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중국 내 코로나 여파 지속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
  - 러-우 전쟁 장기화 속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상승 및 수요둔화, 기업실적 감소 등으로 당분간 금속가격의 약세 예상(BHP, Rio Tinto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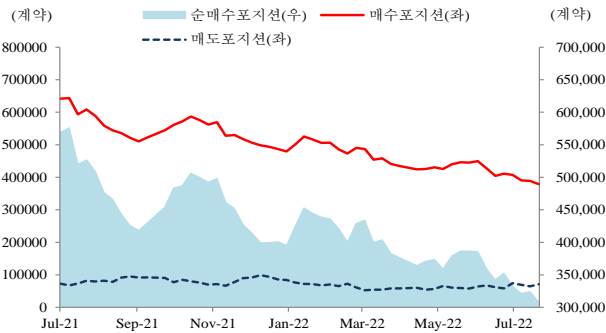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7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구리	7,556.5	8,000 (-1,967)	8,300 (-1,517)	8,400 (-1,142)	8,375 (-1,042)
알루미늄	2,414.4	2,500 (-800)	2,600 (-600)	2,600 (-550)	2,650 (-434)
니켈	21,537.3	23,382 (-4,118)	23,000 (-3,000)	21,500 (-2,000)	21,500 (-1,167)
아연	3,027.7	3,350 (-400)	3,342 (-283)	3,250 (-292)	3,300 (-117)

주: 1) 7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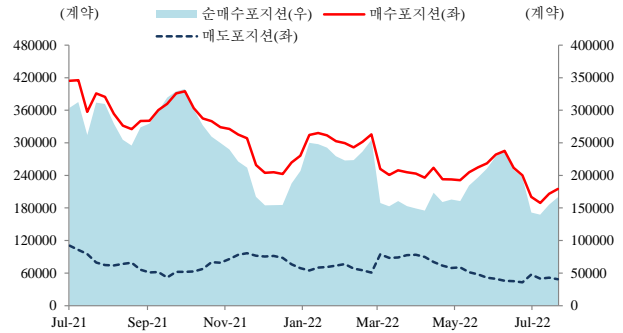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NYMEX WTI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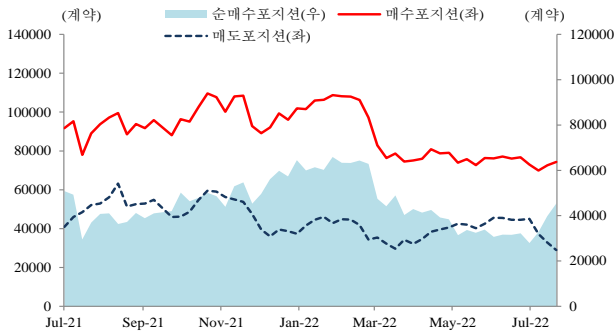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브렌트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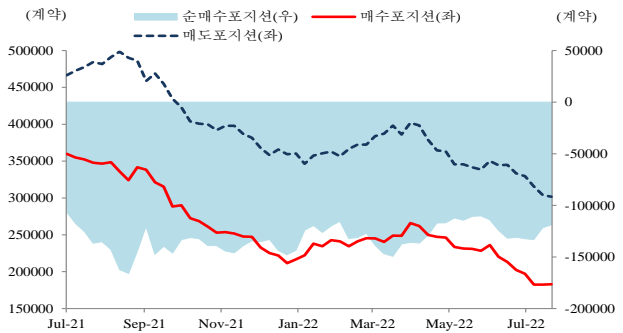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휘발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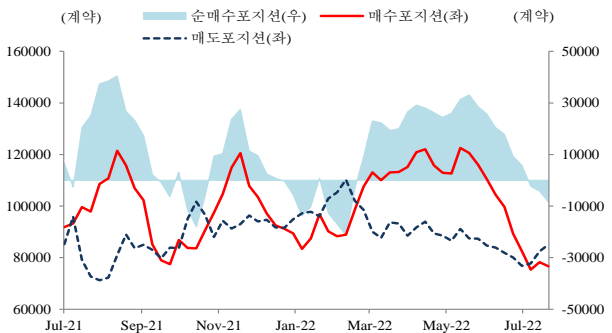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천연가스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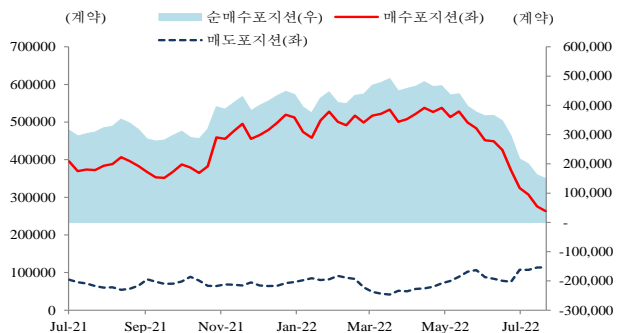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소맥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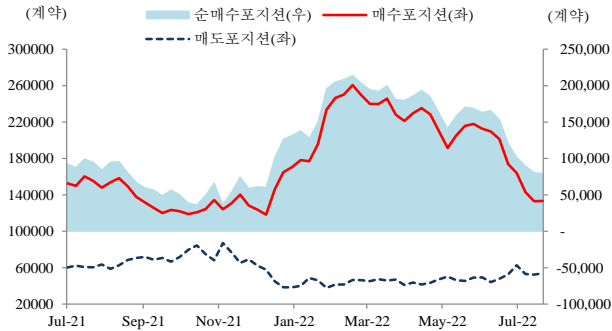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옥수수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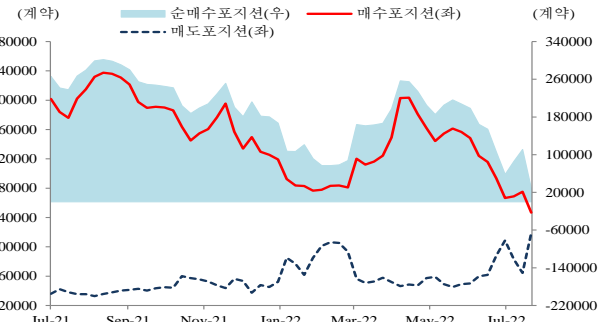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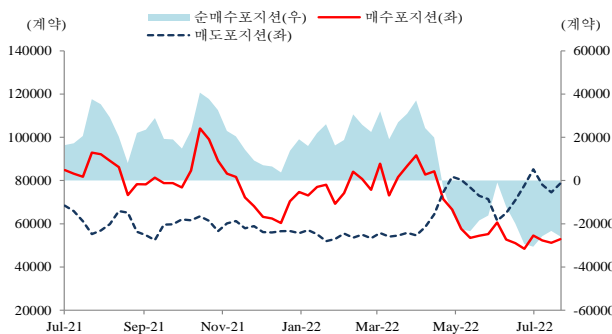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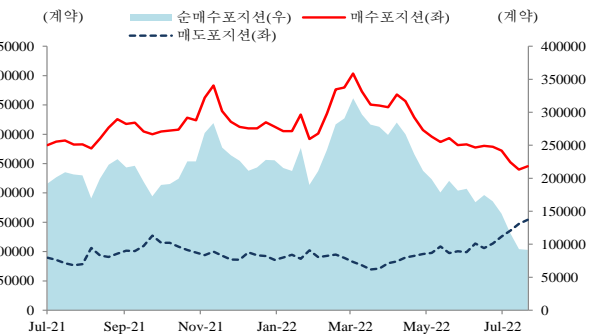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